

대학생 건전음주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김광환^{1*}, 정혜인¹
¹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Effectiveness evaluation of healthy drinking in the university students evaluation

Kwang-Hwan Kim^{1*} and Hye-In Jung¹

¹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생 음주예방 정책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N시와 D시에 소재한 대학생 중 보건의료계열대학생과 공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3월 8까지 대한보건협회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300명에게 배포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작성토록 하였다. 설문지는 의학계열 대학생 48명, 보건 계열 대학생 98명, 그리고 공과대학생들 147명으로 총 293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음주에 미치는 요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p<0.05$)이 영향을 주었으며, 일반적 특성과 음주상태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처음음주시기($p<0.01$), 친구의 음주상태($p<0.01$)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음주상태 및 음주교육이 포함된 경우는 처음음주시기($p<0.001$), 친구의 음주행태($p<0.05$)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델 설명력은 20.0%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음주문화 과련, 대학 내 절주동아리를 이용한 교육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건전음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towards drinking in the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more realistic and efficient drinking prevention policy.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was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Medicine/Health and those at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among students living in N city and D city and the survey, which was constructed by KPHA, was distributed to 300 students from March 4, 2013 to March 8, 2013 with explaining the purpose, contents and entry method of the investigation. Overall 293 responses were collected, as 48 responses from the Department of Medicine, 98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147 from the Department of Engineering.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drinking, as a general factor, a grade($p<0.05$) had an influence, if a general factor and drinking condition are included, it turned out that the first drinking time($p<0.01$) and friends' drinking condition had an influence. Accountance of the whole model was turned out as 20.0%. Considering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culture, it is suggested that active education and campaign through anti-drinking student groups will contribute to create healthy drinking culture.

Key Words : Drinking, University students, Healt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술과 함께 한다. 모임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술

이 빠질 수 없으며 술 마시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술 한 잔 짚은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있다[1].

한국 음주문화 연구센터의 2010년 한국 음주문화 연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

Tel: +82-42-600-6527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September 2, 2013

Revised October 2,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구센터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술을 마시는 빈도가 5번이하가 59.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술자리를 가지면 폭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율은 46.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인 남성의 폭음하는 비율도 63.4%로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다[2].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학습능력저하, 경제적 곤란과 기회비용 상실, 감정조절력 및 순간 판단력 상실로 인한 폭력과 성문제 등이 있다. 즉, 음주로 인하여 희생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3].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음주에 관한 사회적인 대책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알코올 의존 유행율과 기타의학적인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의 경우 술 판매 장소와 술 마시는 장소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분량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5].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주 알코올 통제국(State Liquor Control Board)에서 검사관을 배치한다[6].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구매가능 연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미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류 판매자는 과중한 벌금과 함께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되며, 범법 행위로 규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진다[5-6].

반면에 우리나라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알코올 문제의 예방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들도 최근 들어 알코올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민간기관들에서도 알코올 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7]. 또, 음주가 대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음주행태, 음주관련 문제, 폭음,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8-12].

1.2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에서 음주가 자유롭게 허용이 되는 첫 시점이 대학이라는 점과 또한 그 시기에 형성된 음주 습관이나 행동이 장차 새로운 기성세대의 음주문화를 형성한다는 점을 볼 때[13],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 특별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 국민의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절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에 관한 인식을 분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생 음주예방 정책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N시와 D시에 소재한 대학생 중 의·보건 계열 대학생과 공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3월 8까지 대한보건협회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300명에게 배포하여 연구의 목적, 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작성토록 하였다. 설문지는 의학 계열 대학생 48명, 보건 계열 대학생 98명, 그리고 공과 대학생들 147명으로 총 293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에 따른 음주행태, 교육 및 인식도, 음주관련 지식도, 그리고 음주선별검사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 WIN(version 17.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성별에 따른 음주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처음음주시기, 강제음주시기, 강요하는 사람, 가족의 과음행태, 친구의 과음행태, 절주시도경험에 관한 설문이 구성되어있으며,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문화인식, 음주교육필요성, 음주교육시기, 음주문제감소방안에 관한 설문이 구성되어있으며, 음주 지식도에 관한 설문은 O,X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성별에 따른 음주행태, 성별에 따른 교육 및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고, 음주관련 지식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맞으면[1점], 틀리면[0점]으로 점수화 처리하였다. 그리고 음주선별검사로 실시한 AUDIT의 결과는 총점으로 합산하여, 정상음주군인 남성은 [0~9점], 여성은 [0~5점], 위험 음주군은 남성 [10~19점], 여성 [6~9점], 그리고 알코올 사용장애 중후군인 남성은 [20~40점], 여성은 [10~40점]으로 처리되었다[14].

일반적 특성을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음주행태, 교육 및 인식도로 구분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영향요인을 살피는 하이리키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총 293명중 남자 141명(48.1%), 여자 152명(51.9%)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40.6%로 가장 많았고, 2학년 35.2%, 1학년 24.2%순이다. 이 때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는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했지만, 남자는 3학년이 53.9%로 많은 차이를 하였다. 전공별로는 공과대학 50.2%로 가장 많았고, 보건계열 33.4%, 의학계열 16.4% 순으로 의학계열이 가장 적었다. 하지만 성별로 보면, 남자는 공과대학(65.2%)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여자는 보건계열(44.7%)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거주지는 기숙사가 46.4%로 가장 많았고, 집 29.0%, 기타 24.6%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거주지분포가 비슷비슷 했지만, 여자의 경우는 기숙사가 55.9%로 압도적이었다[Table1].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 N(%)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Male	Female	Total
Grade			
1st grade	22(15.6)	49(32.2)	71(24.2)
2nd grade	43(30.5)	60(39.5)	103(35.2)
3rd grade	76(53.9)	43(28.3)	119(40.6)
Major			
Medical fields	19(13.5)	29(19.1)	48(16.4)
Health science fields	30(21.3)	68(44.7)	98(33.4)
engineering fields	92(65.2)	55(36.2)	147(50.2)
Habitation			
Dormitory	51(36.2)	85(55.9)	136(46.4)
House	44(31.2)	41(27.0)	85(29.0)
etc,	46(32.6)	26(17.1)	72(24.6)
Total	141(100.0) (48.1)	152(100.0) (51.9)	293(100.0)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drinking behavior unit : N(%)

drinking behavior	Male (N=141)	Female (N=152)	Total (N=293)	χ^2 -test	p-value
Frist time of drinking				0.199	0.905
Middle School	22(19.8)	26(22.0)	48(21.0)		
High school	34(30.6)	34(28.8)	68(29.7)		
University	55(49.5)	58(49.2)	113(49.3)		
Time of compulsion drinking				8.471	0.132
Freshmen Welcome Party	16(14.4)	24(20.3)	40(17.5)		
University Festival	6(5.4)	1(0.8)	7(3.1)		
Club activities	9(8.1)	14(11.9)	23(10.0)		
Intradepartment meeting	14(12.6)	20(16.9)	34(14.8)		
Maintenance of human relationship etc.	51(45.9)	41(34.7)	92(40.2)		
Coercer	15(13.5)	18(15.3)	33(14.4)	1.906	0.592
Senior	59(53.2)	60(50.8)	119(52.0)		
Classmate	35(31.5)	32(27.1)	67(29.3)		
Professor	1(0.9)	1(0.8)	2(0.9)		
etc.	16(14.4)	25(21.2)	41(17.9)		
Heavy drinking behavior of family				1.920	0.166
Yes	13 (9.2)	22(14.5)	35(11.9)		
No	128(90.8)	130(85.5)	258(88.1)		
Heavy drinking behavior of friends				4.299	0.038*
Yes	64(45.4)	51(33.6)	115(39.2)		
No	77(54.6)	101(66.4)	178(60.8)		
Temperance try experience				0.172	0.678
Yes	60(54.1)	67(56.8)	127(55.5)		
No	51(45.9)	51(43.2)	102(44.5)		
Total	141(100.0) (48.1)	152(100.0) (51.9)	293(100.0) (100.0)		

3.2 음주행태, 교육 및 인식도

3.2.1 음주행태 특성

처음 음주시기를 보면, 대학교가 49.3%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29.7%, 중학교 21.0%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강제음주 시기로는 선후배 친목모임이 40.2%로 가장 많았고, 신입생활영회 17.5%, 학과MT 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동아리활동, 대학축제, 기타가 있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강요하는 사람으로는 선배가 52.0%로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 29.3%, 기타 17.9%, 교수 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족 중에 과음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안한다” 88.1%, “한다” 11.9%로 “한다”보다 “안한다”가 높았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친구 중에 과음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안한다” 60.8%, “한다” 39.2%로 “한다”보다 “안한다”가 높았다. 이는 P-value 0.038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절주시도경험의 유무를 보면 “있다” 55.5%, “없다” 44.5%로 “없다”보다 “있다”가 많았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2].

3.2.2 음주교육 및 인식

음주 문화 인식을 보면 “무절제하다(49.5%)”와 “심히 무절제하다(8.2%)”가 57.7%이며 “건전하다(36.9%)”와 “매우건전하다(5.5%)”가 42.4%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음주교육필요성은 “필요하다(57.3%)”와 “매우 필요하다(12.3%)”로 69.6%이며, “필요없음(28.0%)”와 “전혀 필요치 않음(2.4%)”는 30.4%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음주 교육시기는 “신입생OT 및 환영회”가 46.8%로 가장 많으며, “교양과목 강좌시”와 “동아리 모임과 MT”가 각각 16%, 대학축제 및 행사가 12.3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교양과목강좌시(15.1%)보다 동아리모임과MT(16.4%)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음주문제 감소 방안으로는 대체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36.5% 가장 선호되며, 음주관련 예절교육 24.2%, 지속적인 교내 건전음주 캠페인 20.5%, 음주관련학칙 13.7%, 기타 5.1% 순으로 나타내며 성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Table 3].

[Table 3] Characteristics of drinking education

unit : N(%)

drinking education and awareness	Male (N=141)	Female (N=152)	Total (N=293)	χ^2 -test	p-value
Awareness towards drinking culture				1.677	0.642
Very intemperate	9(6.4)	15(9.9)	24(8.2)		
Intemperate	69(48.9)	76(50.0)	145(49.5)		
Healthy	54(38.3)	54(35.5)	108(36.9)		
Very healthy	9(6.4)	7(4.6)	16(5.5)		
Needs of drinking training				4.849	0.183
Not at all	6(4.3)	1(0.7)	7(2.4)		
unnecessary	40(28.4)	42(27.6)	82(28.0)		
Necessary	76(53.9)	92(60.5)	168(57.3)		
Very important	19(13.5)	17(11.2)	36(12.3)		
Time of drinking training				0.312	0.989
freshman OT and reception	65(46.1)	72(47.4)	137(46.8)		
liberal arts courses	24(17.0)	23(15.1)	47(16.0)		
Club meeting and MT	22(15.6)	25(16.4)	47(16.0)		
University Festival and Event	18(12.8)	18(11.8)	36(12.3)		
etc.	12(8.5)	14(9.2)	26(8.9)		
Reduction method of drinking problem				2.307	0.679
Drinking Regulatory Policy	17(12.1)	23(15.1)	40(13.7)		
Develop alternative cultural programs	53(37.6)	54(35.5)	107(36.5)		
Drinking healthy sustained campaign on campus	31(22.0)	29(19.1)	60(20.5)		
Alcohol-related etiquette lessons	31(22.0)	40(26.3)	71(24.2)		
etc.	9(6.4)	6(3.9)	15(5.1)		
Total	141(100.0) (48.1)	152(100.0) (51.9)	293(100.0) (100.0)		

3.3 음주관련 지식도

성별에 따른 음주관련 지식도를 보면 “술에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의 질문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 93.2%를 보였고, “술을 마신 후 운동 하는 것은 위험하다”의 질문에 가장 낮은 정답률 12.3%를 보였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정답률 차이를 보인 질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적고 알코올성치매에도 더 취약하다”이며, 남자(39.0%)가 여자(27.6%)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알코올은 흥분제로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이며, 여자(44.1%)가 남자(32.6%)보다 정답률이 높았다.[Table 4].

3.4 성별에 따른 음주관련 의사결정나무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지도 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CART 기법에 의해서 얻어진 의

사결정나무를 기초로 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Fig. 1]는 의사결정나무 중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특히 보건계열 학생들은 여학생이, 공과대학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계열 학생들 중에 ADLT 가 위험군인 여학생은 79.1%로 전체 여학생 51.88%에 비해서 1.52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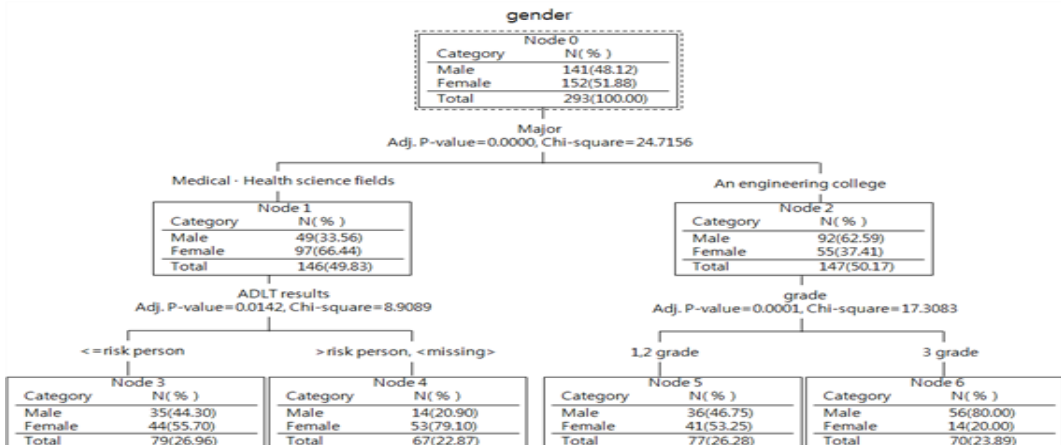
3.5 음주에 미치는 요인관련 상태

음주에 미치는 요인 중,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p<0.05$)이 영향을 주었으며, 일반적 특성과 음주상태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처음음주시기($p<0.01$), 친구의 음주상태($p<0.01$)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음주상태 및 음주교육이 포함된 경우는 처음음주시기 ($p<0.001$), 친구의 음주행태($p<0.05$)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델 설명력은 20.0%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Drinking-related knowledge

unit : N(%)

Drinking-related knowledge	Male (N=141)	Female (N=152)	Total (N=293)	χ^2 -test	p-value
Presence of nutrients	129(91.5)	144(94.7)	273(93.2)	1.213	0.271
Role of stimulant	46(32.6)	67(44.1)	113(38.6)	4.051	0.044
Blood circulation	113(80.1)	127(83.6)	240(81.9)	0.574	0.449
Drinking during pregnancy	125(88.7)	134(88.2)	259(88.4)	0.017	0.895
Sleep	108(76.6)	109(71.7)	217(74.1)	0.909	0.340
Hangover experience	123(87.2)	142(93.4)	265(90.4)	3.240	0.072
Where the first to reach	71(50.4)	75(49.3)	146(49.8)	0.030	0.863
After drinking the risk of movement	20(14.2)	16(10.5)	36(12.3)	0.908	0.341
Violence susceptibility in women	55(39.0)	42(27.6)	97(33.1)	4.274	0.039
Proper alcohol consumption (Men standard)	50(35.5)	55(36.2)	105(35.8)	0.017	0.897



[Fig. 1] Part of the decision tree pictures

[Table 5] Drinking related hierarchical logistic factor analysi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t	P-value	B	t	P-value	B	t	P-value	
(Constant)	7.319	2.589	0.010	24.590	4.770	0.000	24.228	4.111	0.000	
Gender	-1.316	-1.339	0.182	-1.295	-1.355	0.177	-1.503	-1.577	0.116	
Grade	1.489	2.169	0.031	1.058	1.585	0.114	0.721	1.065	0.288	
Major	0.153	0.240	0.810	0.237	0.388	0.698	0.083	0.135	0.893	
Habitation	0.472	0.747	0.456	0.086	0.142	0.887	0.163	0.268	0.789	
Frist time of drinking				-2.040	-3.501	0.001	-2.021	-3.485	0.001	
Presence of compulsion drinking				-0.595	-1.032	0.303	-0.780	-1.350	0.178	
Time of compulsion drinking				0.144	0.533	0.595	0.093	0.344	0.731	
Drinking behavior of family				-1.053	-0.753	0.452	-1.046	-0.753	0.452	
Drinking behavior of friends				-2.82	-2.960	0.003	-2.475	-2.563	0.011	
Temperance try experience				0.199	0.222	0.825	0.041	0.046	0.963	
Total knowledge				-0.350	-1.274	0.204	-0.324	-1.180	0.239	
Awareness of drinking cultural							0.948	1.376	0.170	
Needs of drinking training							-0.770	-1.017	0.310	
Time of drinking training							0.060	0.169	0.866	
Reduction method of drinking problem							0.558	1.317	0.189	
			$R^2=0.054$ adj- $R^2=0.038$ F=3.224(p<0.013)				$R^2=0.171$ adj- $R^2=0.129$ F=4.082(p<0.000)			
							$R^2=0.200$ adj- $R^2=0.144$ F=3.559(p<0.000)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의학·보건계열, 공과대학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학생 음주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성 141명(48.1%), 여성 152명(51.9%)로 총 293명이며 이중 3학년이 119명(40.6%)으로 가장 많으며, 의·보건계열 146명(49.8%), 공과대학 258명(50.2%)을 차지하고, 주거형태는 기숙사가 136명(46.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처음 음주시기를 보면, 대학교가 113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8명(29.7%), 중학교 48명(21.0%)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은 음주는 ‘선배들과의 친목 모임 때’가 가장 많았는데, 선배와 친구(동료)가 주로 과도하게 술을 권한

다고 하였다. 절주나 금주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27명(55.5%)으로 시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으며, 시도한 이유로는 김광환 등[16]의 연구에서처럼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인간관계, 금전적인 문제 등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음주가 대학문화라고 착각하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음주문화가 미치는 영향은 학습능력의 저하와 사고나 사건의 유발 등으로 그 폐해가 크다 [17]. 현 대학생들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가 무절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건전음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음주교육시기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신입생 환영회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37명(46.8%)이며, ‘동아리모임이나 과 MT때’와 ‘교양과목 강좌 시’가 각각 47명(16%)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

다. 그리고 대학 음주문제를 감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음주를 대신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손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음주관련 예절교육’이 차지하였다.

나아가 음주와 관련된 지식정도를 보면 10문제 중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5문제나 되었다. 그 중 ‘술을 마신 후 운동 하는 것은 위험하다’에 관한 정답률이 12.3%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적고 알코올성치매에도 더 취약하다’의 문제가 33.1%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 외에도 적정 음주량, 알코올이 가장 먼저 인체에 미치는 곳, 알코올의 역할 등에 관한 정답률이 낮았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음주 선별검사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증후군의 비중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정상음주군, 위험음주군, 알코올 사용 장애 증후군을 나누는 기준이 남자보다 여자의 점수가 훨씬 낮은 수치에서 측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는 박지연[18]의 연구와 정 반대의 결과이다. 그 이유는 현대에 들어와 여성의 음주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인구가 아닌 특정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것 같다.

이상의 보고 자료들을 볼 때,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체계적이며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알코올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학생들이 건진음주에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음주를 대신할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학 내의 건강한 낭만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한 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학생 음주문화실태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본 연구가 대학생의 음주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1] Jeong Jegal, Alcohol-related statistical indicators and statistics,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09.

[2] Gwanhyeong Go, Alcoholism is Treated by Eating Rice, Asiae Economy, 2011, www.asiae.co.kr/search/index.htm, 2011.02.09

[3] Hyunsuk Choi(ed),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Alcohol encyclopedia,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02.

[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Mental Health Industry Inform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5] Hye Chung Cho, In Kyun Seo. Predictors of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ing among The Disabled People,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14.1, 73-86, 2013.

[6] Seonggi Jo(ed), Drinking Culture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lcohol Encyclopedia,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02.

[7] KODCAR Prophylaxis Headquarters(ed),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for Prevention of Alcohol Problems, Alcohol Encyclopedia, The Korean Alcohol Research Foundation, 2002.

[8] Seungsu Kim, Seulgi Jeong, Changes in Alcohol Use and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2006-2008,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vol. 10, no. 2, 75-88, 2009.

[9] Wonjae Lee, Alcohol Dependency of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1, no. 3, 66-86, 2004.

[10] Seongsu Cheon, Changho Song, Juyeol Lee, Yongpyo Lee, Jaehoon Jeong, Jongsun Park, Seongyeong Kim, Eunsuk Yun, Operation and Evaluation of Prevention Programs for Problem Drinking in the University,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vol. 3, no. 1, 53-86, 2002.

[11] Youngmi Lee, Moonhee Jung, Mikako Arakida,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and Drinking on The Campus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15, no. 2, 250-256, 2008.

[12] H. S. Kim, et al., "The relationship of impulsivity and negative evaluation to alcohol use in the college women", J.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Vol. 13, .21-27, 2009.

[13] Youngcheol Jeong, Hongbae Eun, Zhang,Wei-xi, Li,Bing, A Cross-Cultural Study of Drinking Behaviors and Perceptions i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8, no. 2, 317-324, 1999.

[14] The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AUDIT Consultation Guidelines, The Education for Nurturing

Temperance Leaders in 2013, 75-78,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3.

- [15] Kim Kwang-Hwan, Han Sang-Tae, Kang Hyunchul, Sohn Bangyong. A preventive Model to Cancel Reservation of New Patients Using the Health Information Data Ba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6, 1817-1827, 2004b.
- [16] Gwanghwan Kim, Yongha Kim, Sanggyun No, Jihui Kim, Drinking Cultur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1, 1932-4939, 2011.
- [1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ttp://www.mohw.go.kr/fronmw_sch/index.jsp, 2011.10.11.
- [18] Jiyeon Park, A Comparison Study on The Sociocultural Factors Affecting Men and Women Alcohol, The University of Seoul Graduate School, 2009.

김 광 환(Kwang-Hwan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관리

정 혜 인(Hye-In Jung)

[준회원]



- 2011년 3월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재학
- 2013년 3월 ~ 현재 : 절주동아리 회장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병원관리